

보도시점 2023. 4. 15.(토) 배포 시 배포 2023. 4. 15.(토)

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(영암 : 약 14,000마리 사육, 장흥 : 약 15,000마리 사육)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(H5N1형)되었다고 밝혔다.

* 가금농장 발생('22.10.17.~): 75건(종오리 8건, 종계 3건, 육용오리 30건, 육계 4건, 산란계 23건, 메추리 2건, 관상조류 1건, 토종닭 4건)

농식품부는 4월 14일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,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, 살처분, 역학조사,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.

농식품부는 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하면서, “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,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, 산란율 저하,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.

*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	책임자	과 장	홍기성	(044-201-2551)
	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담당자	사무관	김석재	(044-201-2555)